

차량에 자식 태우고 저수지로 바다로

# 희망 품어야 할 새해벽두 극단적 선택하는 가족들

**광산구 음주다툼 父子 숨져  
신안선 부부싸움에 母子가...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희망을 품어야 할 연초부터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이 잇따르고 있다.

60대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빠져 죽는가 하면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진 어머니까지 새해부터 광주·전남에선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속으로 돌진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베르테르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당국에 가족간의 갈등 내지는 소외된 이웃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관심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허모(45)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저수지 인근 야산 나무에선 그의 아버지(69)가 운몽이 물에 젖은 채로 목을 매 숨져있었다. 저수지에서 10여 분 떨어진 월곡동의 한 주택에 사는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나서기 전 부자가 술을 마시고 크게 다툰데다 아버지 허씨의 지갑 안에서 "○○저수지로 와라"는 메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부자의 죽음을 막진 못했다.

아들 허씨는 5년 전 이혼을 한 뒤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어린 딸과 함께 아버지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허씨는 아들의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다가도 때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 둘 사이의 틈은 벌어져 갔다고 한다. 아버지 허씨는 또 가족들 앞에서 "내가 (아들)을 책임지고 가겠다. 저놈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왔다고 가족은 경찰에 전했다.

여기에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과 의지 부족으로 아들이 제대로 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점도 아들 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낮 12시30분께 신안군 압해읍 송곡리 분재공원 앞 해상에서도 바다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발견지점과 500m 떨어진 해상에선 어린 딸도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운전자인 어머니 과모(32)씨는 전날 저녁 남편과 딸다툼을 한 후 다섯 살짜리 아들과

일곱 살짜리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떠났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현재까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힘들지만, 이 모든 게 가족간 다툼이 근저에 깔려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알코올중독, 가족간 잦은 다툼 등 갈등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사전에 노출된다"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심리 상태를 챙기고 힘든 부분을 보살필 수 없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내지는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려는 노력을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남 송지면 송호리의 한 선착장에서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께 몰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된 손모(57)씨, 손씨의 여동생(54), 여동생의 아들(15)은 부산과 경기 성남에 살다가 연고도 없는 해남 바닷가에서 숨졌는데 현재 경찰은 이 사고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정확한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뒤 차를 타고 있던 광주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추위 녹인 독서열풍**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내 영풍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휴게장소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다. 방학과 새해가 겹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서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부실수사'

**성매수 경찰이 수사 맡아**

**검찰 2차례 보강수사 지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의 부실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수대 소속 경찰들이 과거에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가 하면, 검찰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 부실을 이유로 두 차례나 보강 수사 지시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수대에 따르면 여종업원 A(여·3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로 유홍

업소 입주 박모(여·4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잇따라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광수대가 지난해 12월2일 여성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한 달 동안 확보한 증거는 A씨의 동료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사진이 몇 장이 전부다. 사실상 정황 증거 외에는 박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광수대는 특히 수사 진행 20일이 지나서야 이번 사건 수사팀의 경찰 B씨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B씨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B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2주가량 직접 수사한 셈이다. 광수대는 앞서 직원 C씨가 이 유흥주점에서 성매수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성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성 논란을 낳았다.

초동수사를 진행한 여성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경찰은 사건 초기 A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이 발견됐지만 '폭행 흔적은 없었다'는 의사 소견만 믿고, 업소 내부 CCTV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몇 주 지나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미 CCTV 기록 등은 지워진 상태였다.

광수대 관계자는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의사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유흥주점 업주 박씨의 구속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잠수는 1회 1분 이내, 하루 4시간만

**완도해경 해녀 잠수사고에 '안전수칙' 마련**

'잠수는 1회 1분 이내, 하루 4시간, 한 달에 8일만.'

완도해경이 해녀 잠수사고(광주일보 2015년 12월29일자 6면)를 계기로 나잡어업인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나잡어업인'은 물질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해녀와 해남을 말한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와 관련해 '나잡어업인 잠수 조업시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또 즉각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지역별 '해녀 조업구역도'를 제작해 관리하고 어촌계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안전 네트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경이 밝힌 안전수칙은 '나 홀로 조업 피하고 3~4명이 조를 이뤄 조업하기'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은 수심 5m 이내 어장에서 하루 2시간 이내 조업하기' '겨울철 조업 자제하기' '유색 잠수복 등 안전장비 사용하기'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나잡어업인은 모두 363명(해녀 313명)으로 지역별로는 여수 214명(해녀 179명), 완도 95명(95명), 신안 42명(27명), 고흥 10명(10명), 진도 2명(2명) 등이다. 완도의 경우 모두 95명의 해녀 중 60세 이상은 60명으로 전체 65%에 달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연구 보조금 가로챈

**목포대 교수 2명 구속**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포대학교 교수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010년부터 5년여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목포대 공과대학 이모 교수와 정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정 교수는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통시장 지원금 횡령 혐의 대인시장 상인회장 벌금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장 등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인시장 상인회장 홍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사무국장 문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비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3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명세서 등을 제출해 사업비 1160여만원

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각각 상인회 회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재직하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 3명이 배송업무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2013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사업비 1160여만원을 부당하게 태우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3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진행하기로 한 배송서비스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2014년 초 현장조사를 벌여 사업비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사업 선정을 취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만취 50대 경찰관 뺨 때려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술 사막'이라며 건넌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구수영장이 신청된 박모(54)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지구대에서 김모(35) 경사의 왼쪽 뺨을 1차례 때린 혐의. ○~만취 상태에서 충간소음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박씨는 "동료끼리 술이라도 한잔 사막이라"며 건넌 8만5000원을 김 경사가 받지 않자 손찌검을 했다가 경찰에 제압.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급 매”

##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입주가능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1억5천만원, 매매-1억

##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500만원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